

국내뉴스

항공제품 유럽 수출 쉬워질 듯

우리 항공제품이 유럽 31개 수입국의 안전성 인증을 간편히 받고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추진된다. 또한,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항공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우리 업체의 항공기 공동개발사업 참여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를 위해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제주도에서 각종 항공기 관련제품에 대한 상호 안전성 인증협력협정 체결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항공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국가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가능한데, 이 회의에서는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양측의 당국이 인증신청서의 접수, 검토 및 품질검사 등을 서로 협력하여 이

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협정 문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또한, 최근 우리업체의 유럽 신형 항공기 공동생산 참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업체가 EASA의 생산기관승인(POA)을 취득하는 협력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업체가 POA를 취득할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유럽 수입국가의 품질검사 등을 간편히 받고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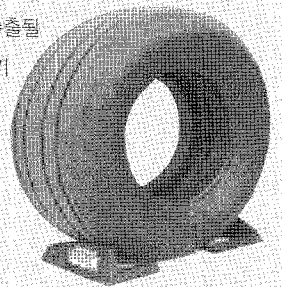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인증담당자가 EASA의 교육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 간의 기술협력방안도 다루어져 항공인증능력 향상으로 인한 우리 항공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2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이 체결된 후, 국내 업체에서 항공기용 타이어를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에 공급하는 방안이 진행 중에 있고, 근래에는 우

리 업체가 유럽의 차세대 항공기 공동개발사업 참여를 추진 중에 있어, 이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럽과의 인증협력협정 체결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번 협상으로 EASA와 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면 EASA의 인증 취득만으로 유럽 31개국의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작년 미국과의 협정 체결에 이어 사실상 주요 항공제품 수출 국가와 대부분 인증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국산 항공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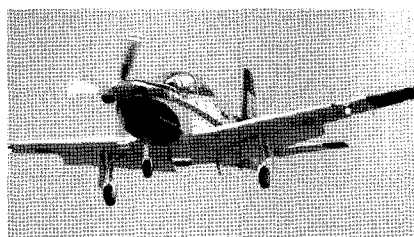
이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항공기 인증기반 확충과 국제협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T-1 엔진 창정비 국내 기술로

KT-1 기본훈련기의 엔진 창정비 능력을 공군이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공군군수사령부는 지난 7월 14일 "예하 81항공정비창이 8년여의 연구 끝에 KT-1에 장착하는 프렛&히트니케나드(PWC)사의 터보프롭형 PT6A-62 엔진에 대한 창정비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되는 엔진 창정비를 전량 외국 제작사에 보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이번엔 81정비창에서 자체 능력을 개발함에 따라 순수 국내기술로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군군수사는 KT-1의 비행시간이 3000시간을 돌파하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엔진 창정비에 대비, 필요한 부속과 장비를 확보하는 등 엔진 창정비 기술의 자체개발을 추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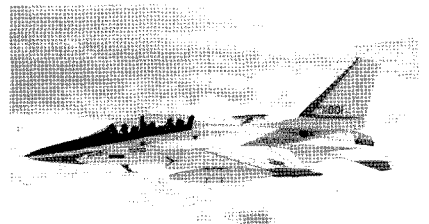


엔진 정비기술을 자체 개발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도 크다. 공군이 소요예산 판단을 위해 엔진 제작사인 PWC에 견적을 의뢰한 2002년도 분석에 따르면, KT-1 엔진 1대 정비에 드는 비용은 약 2억원, 1년에 12대 이상의 엔진 창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최소 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평균 물가 상승률 3%와 현재의 환율을 고려하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엔진 창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81항공정비창장 박종민(공사29기) 대령은 "KT-1 엔진 창정비 능력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항공기 가동률 상승과도 연계돼 보다 완벽한 임무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T-50 훈련기 첫 수출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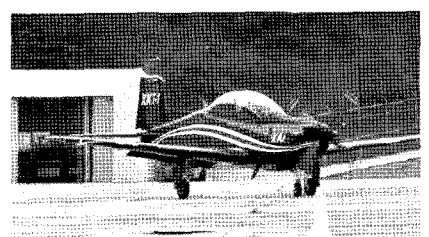
최정에 명품 훈련전투기 T-50의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등훈련기 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폴란드 국방부의 제논 코시나악-카메슈 차관보는 지난 7월 7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 일류 한국 상품전 사회에 참석, T-50의 사업수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코시나악-카메슈 차관보는 T-50은 폴란드

공군의 주력 기종인 F-16의 축소판으로 조종사들의 훈련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라면서 "입찰을 따낼 가능성이 크다(have a good chance)"라고 말했다.



터키 기본훈련기(XKT-1T) 초도비행

지난 7월20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터키 기본훈련기(XKT-1T) 시제기의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KAI는 2007년 12월 26일 터키 정부와 계약



이후 예비설계검토(PDR)·상세설계검토(CDR)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초도비행준비검토회의(FRR)를 통해 지난 6월 말 비행안전성을 확인하고, 7월 13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최초로 '안전비행승인서'를 공식적으로 발급받아 이날 초도비행을 수행했다. 현재 최종조립 중인 KT-T 양산 1호기는 2010년 10월 말 터키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LIG넥스원, 항공기용 레이더 국내 최초 국산화

LIG넥스원(대표 구분상)은 지난 9월 2일 서울 공군 회관에서 방위사업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 ELTA사(대표 Mr. Nissim Hadas)와 국산 항공기인 TA-50 및 FA-50에 장착될 레이더에 대한 국산화 계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첨단 항공기용 레이더 국산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LIG넥스원과 이스라엘 ELTA사의 두 CEO가 만나 양사간 방산기술 교류 및 해외 수출의 방산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번에 국산화하게 될 레이더는 국산항공기인 TA-50(*1), FA-50(*2)에 장착될 예정이며, TA-50, FA-50은 T-50(*3) 고등훈련기의 파생형이다.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로 조종 훈련을 목적으로 설계됐으며,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과 엔진 등을 장착해 동급 훈련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지녀 한국의 차세대 수출 품목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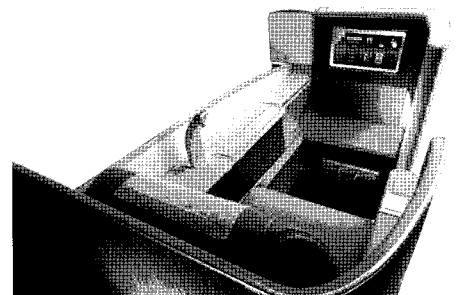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첨단 항공기용 레이더 국산화 사업은, 원제작사인 이스라엘 ELTA사의 레이더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LIG넥스원이 국산화하는 것으로, LIG넥스원은 TA-50과 FA-50 레이더를 2009년부터 국산화 개발에 착수하여 2010년에 TA-50 항공기 레이더부터 납품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중·장거리 여객기 기내 바뀐다

대한항공이 창사 4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 명품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 모든 중장거리 여객기

좌석을 최첨단 명품 좌석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2011년 4월 까지 20개월 동안의 일정으로 B777, A330 등 중·장거리 항공기 32대의 기내를 '코스모 스위트'(Kosmo Suites), '프레스티지 슬리퍼'(Prestige Sleeper) 등 차세대 명품 좌석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좌석 교체는 B777-200(9대), B777-300(4대), A330-200(3대), A330-300(16대) 등 중장거리 항공기 32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좌석 교체는 1대당 평균 25일 소요되는 작업으로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아코노미석 등 모든 클래스에 해당되며 전 좌석 최신형 주문형비디오오디오시스템(AVOD)도 장착된다. 전체 교체 좌석 규모는 9720여 석이며, 작업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국내 항공사상 최대 규모의 2만 8800여 명이 작업에 투입된다. 좌석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2억 달러 규모다.



한국형 우주식품, 화성 탐사 모의실험 나선다

지난해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씨에게 공급했던 김치, 라면, 수정과, 생식 바 등 한국형 우주식품 4종에 이어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참뽕 음료 등 4종이 추가로 우주식품으로 인증을 받는다. 이 한국형 우주식품은 러시아가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수행할 화성 탐사 모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인들에게 공급돼 우수성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정읍방사선화학연구소 방사선식품유종연구부 이주운 박사팀이 방사선 멸균 기술과 식품공학 기술을 접목해서 개발한 김치, 수정과,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참뽕 음료 등 한국형 우주식품 6종을 러시아의 화성 탐사 모의 실험 프로젝트 'MARS-500'에 공급하기로 하고 러시아 연방 국립과학센터(SSORF) 산하 생화학연구소(BMP)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MARS-500은 러시아가 2030년 화성 유인 탐사를 목표로 준비 중인 화성 탐사 모의 실험으로, 지상에 화성 탐사 우주선과 화성 표면을 모사한 밀폐 시설을 짓고 6명의 우주인이 520일간 격리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프로젝트다. 러시아의 EU,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다국적으로 선발될 예정인 우주인 6명이 2010년 3월부터 5개의 모듈로



이러한 밀폐시설(총 공간 550 m³)에 들어가서 화성행(250일)-화성 체류(30일)-지구 귀환(240일) 등에 소요될 520일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MARS-500의 주요 실험 목표 중 하나는 우주방사선과 무중력 등 극한 환경에서 장기간 우주인의 생활을 보강할 수 있는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이를 위해 러시아는 다양한 국가의 우주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형 우주식품 6종을 MARS-500 프로젝트를 수행할 우주인에게 120일간 공급, 장기간 섭취에 따른 면역력 변화 등 영양 생리 영향평가를 수행하게 됐다.

MARS-500에 공급될 한국형 우주식품 6종 가운데 김치의 수정과는 지난해 라면, 생식 바 등과 함께 BMP의 인증 평가를 통과해서 이소연씨의 우주여행 때 국제우주정거장(ISS)에 공급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더해 추가로 개발한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참뽕 음료 등 우주식품 4종을 BMP의 적합성 인증 절차를 거쳐 MARS-500 프로젝트에 공급하기로 했다.

